

포장마차·노점상 등 광주 영세사업자 2만명

1,600억 규모 보증 지원 받는다

광주시·신보 16일부터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재숙)은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 주기 위해 16일부터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1천600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례보증지원금은 설 전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7~9급으로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포장마차, 노점상, 시장상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 등을 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 2만여명이다.

특례보증지원금은 업체당 최고 1천만원부터 최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금액 100%를 보증한다.

시는 그동안 특례보증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이 85% 선에 그쳐 은행권에서 자부담 때문에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전액 보증키로 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보증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수수료도 1%로 낮추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설 전 中企에 2,000억 대출

광주은행은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에 모두 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1천억 원에 이어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중소업체들의 운전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로 1천억원을 긴급 편성, 내

달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사치형탁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10억 원이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0% 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국철강 주가 급등 왜?

남상규 회장 “저평가 됐다”

3개월새 4.86% 지분 매입

광주지역 상장기업인 부국철강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국철강은 최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남상규씨가 지분 1.45%(28만5천 480주)를 장내 매수해 보유지분이 23.96%(479만2천740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분 늘리기에 나서 21일 5만9천680

주(0.67%), 12월 12일 33만여주(1.68%)를 장내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세차례에 걸쳐 3.96%의 지분을 추가했다.

부국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한차례에 걸쳐 0.9%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3개월 사이에 4.86%의 지분

을 늘렸다.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까지 포함할 경우 남 회장의 행사 할 수 있는 지분은 전체의 53.27%에 달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제보정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82-227-9940
(082) 227-9940

충장점 082-227-9970
(082) 227-9970

하늘뿌리
천마

천마(천마)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비가 되는 풍상을 치료했다’하여 이를 뿐여전 기능성 건강이물로써 무후군이 충점 육성하고 있으며 농협수선화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생활가전 트렌드 3E-1H”

〈김성·친환경·절약·건강〉

삼성전자 상반기 신제품 발표회

하우젠 에어컨 등 50종 공개

삼성전자가 올해 생활가전 시장 트렌드로 감성(Emotion)·친환경(Ecology)·에너지 절약(Energy Saving)·건강(Health)을 제시했다. 이를바 3E1H 트렌드다.

삼성전자는 13일 서울에서 최진균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상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삼성전자는 삼성광주전자가 생산하는 하우젠 에어컨 40여종 뿐 아니라 퍼니처 스타일의 지펠냉장고, 개인용 ‘삼성 SP(Super Plasma ion) 바이러스 타이’ 등 상반기 신제품 50여종을 처음 공개했다.

최진균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감성·친환경·에너지 절감의 미래 3E 기술 트렌드에 올해는 헬스케어 기술을 대폭 도입,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온 건강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최고의 성장세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냉방뿐만이 아닌 건강하고 깨끗한 바람을 바리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몇 년간의 건강(헬스케어)기술을 집대성한 역작으로 하우젠 에어컨 40여종을 출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하우젠 새 모델 ‘비빔의 여신’을 소개하고 있다.

“증진 대기업 유동성
산책 등서 모니터링”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3일 쌍용차의 법정관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차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슬람금융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지속 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200여 개 생활차 협력업체 중 쌍용차에 전속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진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산업은행 등에서 그룹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반기 경기 침체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증진 대기업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동부, 두산 등과 같이 거대 기업집단이 아닌 그룹을 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P시장 숨통 트이나
RP 1조300억원 응찰

기업어음(CP)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입찰을 한 결과 1조 300억 원이 응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CP와 카드채 등 신용위험에 있는 크레디트를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1조5천억 원을 시장에 풀 예정이었으나 증권사 등이 1조300억 원만 받았다는 의미다. 이번 RP 매입의 평균 낙찰 금리는 2.52%이며 만기는 91일률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 등으로 CP금리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호전되면서 응찰규모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91일물 CP금리는 지난 12일 하루 만에 0.27%포인트 급락한 5.66%를 기록했다. CP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7%대를 웃돌았다.

/연합뉴스